

# 딥페이크 대책 하루빨리 나와야



윤 위 중 의  
잠시 쉼표

인공지능(AI)을 악용해 발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해외 테크기업들을 중심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도 하루빨리 '딥페이크' 등 AI의 부정적 사용을 막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이미 다양한 피해사례 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AI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주요 테크 기업과 각국 정부의 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피해도 커지자 최근 유튜브는 AI규제방침을 발표했다.

테크크런치를 비롯한 외신보도에 따르면 유튜브는 음성 데이터를 모방한 생성형 AI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는 조항을 제시했다. 생성형 AI 콘텐츠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개인정보 침해로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성년자나 컴퓨터에 접근할 수 없을 상황인자, 또는 사망한 자 등의 예외를 제외하곤

당사자가 직접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한다.

물론, 이런 삭제 결정을 유튜브의 자의적 기준으로 한다는 점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유튜브 측은 콘텐츠 삭제 요청 접수 시 여러 요인을 고려해 판단을 내린다고 한다. 특정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지, 패러디 또는 풍자로 대중 이익을 위한 것인지, 폭력, 정치인 지지 등 민감한 내용이 담겼는지도 고려한다.

이런 방침은 유튜브 자의적인 해석이 가미될 수밖에 없어 논란의 여지도 있지만 AI의 부정적 사용에 대한 대책의 시작이란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유튜브뿐 아니라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이런 움직임에 합류하고 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의 경우 딥페이크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사진에 대한 라벨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메타 AI에서 만든 AI 이미지에 라벨을 붙였으나 지난 5월부터 모든 게시물로 확대했다.

우리 국회는 지난 21대에 이어 이번 22대에서도 AI와 관련한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 정점식 의원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과 안철수 의원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법'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들 법안은 AI 산업의 '진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AI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법률도 필요하다.

지금 국회는 22대 회기를 시작했지만 고(故)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특검 등의 이슈로 사실상 '시동'조차 못 걸고 있는 상황이다. 특검 이슈가 온통 국회를 뒤덮고 있다보니 다른 민생 법안이나 새로운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논의는 꺼내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세계 각국 정부와 주요 테크 기업들은 AI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대비를 하고 있다. 기술개발이야 민간 영역이라 치더라도 규제책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참여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무엇보다 소름끼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AI는 끊임없이 학습을 하면서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특검을 이유로, 정쟁을 이유로 AI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논의를 미뤄선 안 되는 이유다. /정치부장 yhi@metroseoul.co.kr

# 해병대원 1주기 다가오는데



기지 수첩  
박 태 홍  
(정치경제부)

2023년 7월 19일, 해병대 제1사단에서 복무 중이던 2003년생 해병대원이 폭우가 쏟아진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내용을 보고 받고 격노했다는 보도 이후 사건 이첩이 보류되고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수괴죄로 입건됐다.

야당은 전반적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을 풀기 위해 21대 국회 막판 순직해병 특검법안을 밀어붙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

부권)을 행사했고 재의결이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다. 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특검법안을 재발의했으나, 여야가 서로 자기 주장을 고집하면서 정국이 난맥상에 빠져있다.

전날(2일)에도 민주당은 대정부질문 후 순직해병 특검법을 상정하려고 했으나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특검법이 여야 조율 없이 처리되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특검이 이뤄질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특검법안을 놓고 정국이 멈춰서면서 민생 경제 법안도 처리가 늦춰진다.

보다 못한 정치권이 특검법안에서의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으면 대화를 제안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특검법안의 비교섭단체 특검 추천 몫을 양보할테니, 여당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 추천 방식을 논의하자고 했다. 특검 추천에서 여당

을 배제한 것은 국민의힘이 가장 반대한 조항이었다.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국민의힘도 당 대표 선거로 입장이 조율되지 않고 있지만, 한동훈 전 비상대책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의 순직해병 특검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지난 1일 열린 국회 현안질의에서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온다면 수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해병대원 사건 1주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국가 안보를 위해 고난의 길을 자원했던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은 여야가 같을 것이다. 지금의 특검법 논의로는 여야의 극한 대치만 불러올 뿐이다. 해병대원 1주기 전에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 국민 앞에 공개하길 기대해본다. /pth7285@

오늘의 운세 7월 4일 (금 5월 29일) 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믿음을 가지고 상대를 설득. 48년생 처음이 중요하나 끝맺음도 잘해야 한다. 60년생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 착하게 살아야 한다. 72년생 두드러진 열릴 문이니 성의껏 두드려라. 84년생 구슬이서 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이니.

**소** 37년생 이상의 허황된 꿈이 지출을 부른다. 49년생 자식의 잘못은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61년생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나 기다려보라. 73년생 붉은색과 함께 숫자 7이 행운을 준다. 85년생 지금 당장 못하니 마음이 급해진다.

**호랑이** 38년생 재산 조사가 끝났으니 분배해준다. 50년생 평온한 바다에서 한가하게 뱃놀 이한다. 62년생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74년생 직장에서 기본 소식이 들려온다. 86년생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니 즐겁게 살자.

**토끼** 39년생 썩지 않으려면 물은 흘러 보내야 한다. 51년생 인생은 결국 혼자 가는 길. 63년생 재능이 가득해도 올바른 처신이 구슬수를 예방한다. 75년생 공부할수록 세 상살이에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 87년생 늘 먹던 밥도 신물이 날 때가 있다.

**염** 40년생 정답을 알아도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 52년생 비빌 언덕이 있었으면 좋겠다. 64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오늘은 매사에 자중. 76년생 배가 고프면 콩 한 쪽 을 가지고도 다투게 된다. 88년생 거스를 없이 뜻밖의 횡재수가 있다.

**뱀** 41년생 조금씩 알아가는 소소한 재미가 있다. 53년생 마른 눈에 물들어 옷들이 일이 풀린다. 65년생 정확한 의사 표현이 중요하다. 77년생 바라던 일의 결과가 좋아 명예 가 높아진다. 89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여지지 실망은 이르다.

**말** 42년생 관계를 유지할 때 나의 잣대로만 하지 말자. 54년생 마음속에 담고 있는 뜻이 곧 말이 아니겠는가. 66년생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데. 78년생 한밤중에 비단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격. 90년생 마음이 상쾌하니 능률도 많다.

**양** 43년생 불만이 있어도 인해. 55년생 과대포장은 실망이 따른다. 67년생 몸이 머무는 장소는 외부가 아니라 집이거늘. 79년생 쾌활하고 낙천적인 성격으로 화합을 이루게 된다. 91년생 데카르트의 명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했는데.

**원숭이** 44년생 주는 것에 대해 이기적인 마음으로 실수를 한다. 56년생 깊이 생각하고 행동 하니 영입이득이. 68년생 오늘은 운세가 향상되니 무슨 일든 참어. 80년생 돌다리 도 두드리고 아는 길도 물어서. 92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라 했다.

**닭** 45년생 불평 마라 절이 싫으면 종이 때려내면 된다. 57년생 오늘이 마지막 것처럼 최 선을. 69년생 외출할 때 음주 조심. 81년생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하다 보면 길이 보임. 93년생 교만함으로 뱀새서 빛을 감는 처량한 신세가 됐다.

**개** 46년생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듯이 내가 해야만. 58년생 영업 특성을 알면 실수가 줄 고 이득이 창출된다. 70년생 포기하면 마음은 편하다. 82년생 술선수배하고 모범이 된다는 것은 책임. 94년생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

**돼지** 47년생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차용증을 받아라. 59년생 순리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 으니 걱정이다. 71년생 원망하고 닳고 싶었으나 공부하라. 83년생 무엇보다 정보 최우선 시대이니 움직임여라. 95년생 목청 높여 울어대면 슬픔이 오게 되니.



김상회의四季  
걱정되는 후천갑자

과학과 통신의 발전이 인류의 행복을 위한 것을 지나쳐 돈이 되고 이익이 된다면 인간이 과학 문명 도구의 노예가 됨은 물론이요. 인간 존엄의 근간을 흔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런 불안한 확신은 벌써 일 년도 전에 일론 머스크의 '인간 뇌 칩 이식' 실험이 FDA의 승인을 받았다는 기사가 나기 이전부터도 우려하던 점이지만 이는 비단 필자의 걱정만 아닐 것이다. 인간의 뇌에 칩이 달린 장치를 이식해 인간과 컴퓨터의 연결을 강화하는 기술을 개발해온 '뉴럴링크(Neuralink)'는 이 같은 기술이 비만·자폐증·우울증·정신분열증을 포함한 다양한 상태를 치료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동안 영화나 공상과학 소설에서만 상상하던 일이다.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회사 중 '뉴럴링크'는 그 상상을 실제 인간의 현실로 가져온 것이다. 질병 치료와 같은 목적으로만 활용한다는 것을 순진하게 믿어야 할까? 물론 시각장애인이 시력을 회복 사고로 온몸이 부자유스럽거나 근육이 굳는 몸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의료적 목적도 기대해볼 수는 있다. 그러나 불순한 조종과 통제의 목적으로 활용될 걱정도 배제할 수 없다. 인간 세는 합리적 이성을 지닌 사람들만의 세계가 아닌 까닭이다.

명리학 관점에서 보는 우주의 질서상 현재는 후천 세계가 발전되고 진행되는 초기에 있다. 기존의 질서와 상하 관계가 뒤집히는 시대다. 물질이 정신의 가치보다 한참이나 우위에 있는 세계이기도 하다. 따라서 뇌 칩 이식이 사람을 돕는 기술의 목적으로 출발했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어두운 탐욕과 광기가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악마의 표식이 되지 않기를, 후천갑자의 시대가 종말로 가는 상징의 시발점이 되지 않기를 바라본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6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69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